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는 심판자로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나타내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생명사건을 존귀하게
바라봄으로 세상 조건의
차이는 사소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보았네

신윤식

집을 나서 길 위에 서니
펼쳐 깔리는 용광로 같이
바싹 타들어가는 대지 속에
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과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
사랑을 원하는 자
사랑을 잃을까
염려하는 자들이겠지

잠들면서까지 살아갈 것을
걱정하는 자
죽으면서도 어떤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자들이겠지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지고
그 길 위에 서니
한 여름의 뜨거운 바람이 가르쳐 주네
인생의 마지막 길을

보이는 길로만 가는 사람들 속에
세상에서 생의 의미를 찾지 않고
사는 길로 가겠노라
다짐하는 자를
나는 보았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8.14

발행호수 제19권 32호

우리는 지구상에 있었던 대재난에 대한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중국과 일본 등 최근에 있었던 재난으로부터 몇 년 전의 사건들까지 몇 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죽은 엄청난 재난들입니다. 이러한 재난에는 후유증

또한 엄청납니다. 재난으로 무너지고 엉망이 된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 수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고, 재난으로 인해 불구자가 되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재난 앞에서 아마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대재난이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를 거북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간혹 철없는 사람이

‘다른 나라는 대재난을 겪지만 우리나라는 평온하게 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말은 스스로를 신앙인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이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며 가뭄이 들고 지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연적 현상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말이 신자에게는 가장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대재난으로 수 만,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것

주일오전설교
마 24:15-22

큰 환난

이라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생각해 볼 것은 대재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 실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도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마 24:7,8)**” 고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이나 지진들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미 재난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징조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러한 시각으로 재난들을 바라볼까요? 어쩌면 우리 역시 그 같은 재난들을 세상의 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징조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연현상으로 여기면서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나치고 잊어버린 채 현재의 삶에만 몰두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성경은 변함없이 세상의 끝에 있을 환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의 끝은 도래할 것이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 것이 참다운 지혜인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진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9:27절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고 더럽혀질 것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인용하신 것인데 장차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성전 또한 무너질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거든 유대에 있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산으로 도망할 때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고 밭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집에 있는 것은 아무런 미련도 두지 말고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 집안에 간직을 합니다. 하지만 환난의 때가 되면 집안에 있는 귀중한 것도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귀중한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간다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귀중하고 물질적 가치가 있는 것들도 환난의 때에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임을 안다면 귀한 보화가 있고 없고에 큰 관심을 두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을 아는 신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아이로 인해서 도망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화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환난의 때에 도망치는 일이 임한 여인이나 젖먹이 아이가 있는 여인에게는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로 인해서 도망치는 일이 수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 아이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것처럼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해도 역시 환난의 때에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실제로 아이가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니 아이를 낳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도 환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들이 환난의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변함없이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곁에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도망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도 겨울에 도망을 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이고 안식일에는 2킬로미터 이상을 걷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멀리 도망을 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살아갈까요? 말한 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를 환난의 때를 감지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도망 쳐야 할 환난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기도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다윗 시

대 때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면 메시아가 빨리 도래하기를 위한 기도로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큰 환난을 예고하시고 환난 때에 도망을 치는 문제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또한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복과 영광이 중점입니다. 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로 고민하기 때문에 환난의 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당시 유대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1절)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본문과 같은 말씀은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며 사람이 죽어 나가는 참혹한 현장에서 외쳐지는 것이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난이 있는 현장에서 종말을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을 감지하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참혹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해도 세상은 말씀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토록 완악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대비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을 대비하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보이는 현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사 대 재난이 있다고 해도 자연현상으로 여기면 그만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외면하고 믿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왜 멸망을 당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악의 정점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누구도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현장만이 아니라 죄에 갇힌 자를 향한 저주를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재난으로 실감하고 확인하고 믿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실감하고 확인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왜 세상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처럼 큰 환난과 세상 끝에 대한 말씀 앞에서 신자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 대한 말씀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깊이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 날은 큰 환난의 날을 말합니다. 그 날들을 감한다는 것은 큰 환난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환난에서 피할 길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이 됩니다. 환난의 때에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는데 여러분은 구원 받을 자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음의 길에서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임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로서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똑 같이 어리석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주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오우설교

요일 4:7-12

교회의 사랑

(교회3강 7.17일 설교)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이 말이 자칫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에 교회 사랑을 끌어 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사랑은 보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먼저는 그와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불편한 관계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친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을 과연 이러한 세상의 사랑과 빗대어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지만 교회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아래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수준 높은 사랑이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사랑일까요? 하지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해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가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처럼 세상의 규범적 윤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사랑 역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교회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돕고 지켜주시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형제 사랑 역시 도와주고 친절을 베푸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친절이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것이었습니까? 그러한 사랑은 매우 추상적이며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믿는 자들이 모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믿는 자이면서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말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도우심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9,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고 말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사랑이며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 즉 생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은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해도 그 일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때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그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신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신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

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구속의 일에 대해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있고, 기쁨과 감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랑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보다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에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형제에 대한 섭섭함만 있을 뿐이지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말이 친절을 베풀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라는 의미가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주에 갇힌 우리에게 생명 주심,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살았다는 뜻입니다. 즉 생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죽은 자에게는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안겨주고 친절을 베풀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한순간의 기쁨으로 그칠 뿐입니다.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존귀한 것은 생명이며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사랑

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요한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사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은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사랑을 보이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생명의 열매로써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능력에 의한 행함이기 때문에 나의 실천도 행함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경험한 신자라면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 기쁨과 감사의 세계를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이 많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까?'라는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 대로 예수님의 생명 사건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에 있는 신자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는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형제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 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이스라엘 신앙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가지지도 않았고 신뢰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없었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가는 2:17절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은 악인이 잘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어주신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세상에서 실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공의도, 사랑도, 무엇보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처럼 악인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세상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하나님의 정의는 죽었고 하나님의 존재 역시 알 수 없다고 외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실감하십니까? 혹시 성경 말씀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 사자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인데 언약의 사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심판자로서의 길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옴으로써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 받을 자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와 사자가 오기 전에 세상은 죄에 대해서도 심판 받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사자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이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세례요한

수요일설교

말 3:1-6

공의로운 제물

(5장 7.13일 설교)

으로 이어집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세상 전부를 악으로 규정하고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악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악을 드러내기 위해 주가 오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가 임하시는데 그 주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잿물은 정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녹으면서 불순물과 순금으로 분리됩니다. 잿물은 옷감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처럼 불순물을 제거하는 능력으로 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과 잿물로 오시는 주 앞에서 누구도 '나는 정결하다' '나는 더럽지가 않다' 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불순물이 가득한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주가 오심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처럼 악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정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악한 자는 벌 받고 착한 사람은 복 받고 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악으로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누구도 '세상에 의인은 없다' 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악인이었음을 알게 되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의인 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하나님의 정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은 잘되고 이방인은 벌 받고 망하는 것을 정의로 여겼을 뿐입니다. 때문에 그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힘으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현장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도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제물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다고 해도 공의로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제물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제물을 원하지 않

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물을 바쳐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죄를 보지 않는 악입니다.

공의로운 제물은 우리의 정성도 노력도 우리의 것을 바치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공의로운 제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제물을 바쳐서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것만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제물을 기뻐하시고 이 제물을 바치는 그들이 불과 잿물로 연단된 깨끗한 자로 여김 받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판에 해당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을 돌아보지 않고 다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망에만 매어 살면서도 그것을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풍요가 곧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사고방식의 세상을 향해 말씀을 외칩니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고 외면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그들이 해오던 대로 의 신앙만을 고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더 의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무엇을 하고 바친다고 해도 공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현실이 되면 잘 살고 못사는 것이 말씀 안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일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공의로운 제물은 이러한 신자에게만 가능합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64장

교 독 : 45(시103편)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428장

성 경 : 마 24:15-22

말 씀 : 큰 환난(149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95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2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02장

기 도 : 도옥희 권사

찬 송 : 284장

성 경 : 요 18:33-36

말 씀 : 교회와 세상(교회 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88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1강)

■ 교회소식 ■

1. 예배 후 제직회 모입니다.
2. 피아노 구입 후 잔액으로 전자키보드(80만) 앰프(60만) 구 피아노조율(8만) 지출 하였습니다.
3. 황경영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복현2동 241-1 복현명문세가 205동 1402호)
4. 다음 주에 총회 은급부를 위한 헌금을 합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송수경 집사

신자로 사는 인생 ③

사람이 자기 현재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욕망은 자식으로까지 이어지기 십상이다. 때문에 현재의 자기 모습이 초라하다고 여겨지면 사람의 마음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허감을 새로운 보람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 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뒤늦게 직장을 가져보려 하고, 취미생활에 몰두하기도 하며, 혹은 교회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설령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겼다고 해도 심한 질병으로 인해 육신은 피폐해지면서 죽음의 순간을 실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육신도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해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자기 인생의 의미가 되고 전부가 되고 할 수 있는 존재를 잃었을 때, 인간으로써 느끼는 인생의 허무감과 아픔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을 겪게 되면서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다.

이러한 인생 여정에서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원치 않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며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앙은 인생에 대해 다른 의미와 보람을 찾게 해주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위기를 대쳐해나가게 하는 힘이다. 위기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참된 생명을 향해 가게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신자는 인생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새로운 힘이 있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다. 즉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새 사람이며, 인생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위기가 무엇이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극적이지 않고 비교적 간절하다고 해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이며 신앙의 길을 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평생 해오던 일을 다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좇을 수가 있느냐는 의문이 있는 것이다. 베드로처럼 고기잡이로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그 모든 생업과 가족까지 뒤로 하고 전혀 알지 못한 예수를 좇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경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게 된 당시의 상황, 즉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만 증폭되는 것이다.